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umer's Attitude for Food Safety and Purchase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조 교수 김성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Keimyung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Sung-Sook

<Abstract>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consumer's attitude of food safety and their effects on the purchase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se purposes, the survey was implemented to 550 adults who resided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s, a lot of respondents perceived the five food hazards, pesticides, food additives, BSE, chemical materials, GMOs as the severest food risks. Results revealed that women, the most educated, married, and the older respondents were more likely to be negative about food safety. And Also, consumer's knowledge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as lower than the median. The respondents who have bought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ere 80.5% of the entire respondents. Also, the educated and the consumers who had the knowledge of the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tarted to purchase them. The consumers who had higher income, perceived the food hazards(BSE), assessed agricultural products safety negatively, had willingness to pay them and more knowledge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ere likely to purchase them usually.

▲주요어(Key Words) :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attitude of food safety), 친환경농산물구매행동(purchase of environment-friendly-agricultural products), 식품위험요인인지(perception of food hazards),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environment-friendly-agricultural products)

* 본 연구는 2005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김성숙 (E-mail : kssch@kmu.ac.kr)

I. 문제제기

소비자들의 식품체계에 관한 태도는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반영한다. 식품체인(food chain) 단계에 있는 농업인, 식품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정부기관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은 최종소비자의 인지에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태도가 정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의 식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5년에 발생하였던 '불량 만두소 사건'은 소비자 대중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함을 단적으로 보여 준 예이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광우병' (이하 소해면상뇌증) 문제나 '조류독감' 문제와 같은 식품 원인성 질병도 중요한 식품안전 이슈로 등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소고기나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수요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육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이는 장기적으로 육류에 대한 기피현상이라는 새로운 식문화를 파급시키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중앙행정 기관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지식수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인지 및 행동에 대한 소비자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영국 식품표준국, 2004;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2004).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태도 조사가 식품안전정책의 기본과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지도 및 체감도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그 위해 식품을 포함한 식품군 전체를 외면하게 됨으로 인해 해당식품 시장이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 식품산업에 대한 외국의 인지도에 혼격한 타격을 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주로 어떤 종류의 안전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이러한 식품 위생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관련 소비 트렌드는 '웰빙'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 또한 이 웰빙 트렌드는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구매 촉진으로 연결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친환경 식품에 대한 구매의사로 연결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여러 가지 태도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식품안전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식품생산 및 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의 생산이나 판매과정시, 소비자들이 식품

구매시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 식품안전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증가시킬 경우 수반되는 가격상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비자들의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 선택으로 최근에 생산 및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국가적으로 농업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통방법과 현황과 같은 유통실태, 지불의사와 지출액 등을 통한 수요분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행동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인구사회적 요인, 소비행태와 소비자선택 및 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현태선 등(1997), 강충관 등 (2005), 김이선 등(2005), 윤희재(2004)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속성 및 구매행동 및 관여도 등과 소비자행동을 분석한 것으로 김창길 등(2005)의 연구와 차동욱(2007) 등이 있다. 각 개별 농업 생산 현장이나 식품가공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기 전에 소비자수요 및 태도 조사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나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며 다양한 영향요인을 발굴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소비자 태도 및 행동 차이는 정책적 목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수립에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소비자의 식품관련 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주로 통제변수로만 이용되어 왔으며 또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더욱이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구매 행동을 연결하여 그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희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정부에는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할 것이고 농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에는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여 시장 세분화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갖는 신념과 감정으로 적극적(긍정적)이거나 소극적인(부정적인) 심적 성향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식품관련 위험요인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정도나 관심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왔다. 즉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위험요인을 많이 인지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경우 식품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외국연구 동향을 보면 '농약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지를 연구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Bealer & Willits, 1966; Byrne et al., 1991; Dunlap & Beus, 1992; Nayga Jr. 1996; Pilisuk et al., 1987). 최근에는 식품안전성 문제 시각에서 박테리아균(식중독)이나 영양학적 위험(지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관심정도에 대한 연구(Knight & Warland, 2004)가 이루어지면서 연구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정도와 불안요인을 조사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박경진 등, 1999; 최정숙 등, 2005). 소비자학 분야의 관련 연구들은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비자인지도, 정보요구도, 구매의사를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김효정·김미라, 2003; 김혜선·김문정, 2004; 박혜영·김시월, 2005). 우리나라 소비자의 잔류농약에 대한 관심 정도는 응답자의 77.5%가 대체로 또는 매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중독에 대한 관심정도는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정·김미라, 2003). 이러한 결과는 Knight와 Warland(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조사결과(2004)에서도 일본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위험요인은 농약이 67.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수입식품 66.4%, 식품첨가물 64.4%, 화학물질 60.7%, 유전자재조합식품(GMO) 49.0%, 건강식품 48.6%, 미생물(Microorganism) 46.8%의 순으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료 45.1%, 프리온 42.6%, 포장재료 35.4%, 바이러스 34.3%, 자연 독성/곰팡이균 34.3%, 방사선조사식품 29.7%, 신기술식품 27.3%, 수의약품 26.4%, 화학비료 23.5%, 이물질 23.3% 순으로 나타났다¹⁾.

우리나라의 경우 위생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박경진 등, 1999)에서는 불안하게 느끼는 위험요인으로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식중독미생물, 종금속, 항생물질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최정숙 등, 2005)에서는 잔류농약(96.1%), 보존 및 착색료 등의 식품첨

가물(95.7%), 환경호르몬(93.0%),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91.7%), 유전자 변형식품(90.2%), 가공식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86.5%), 광우병/ BSE(85.0%), 알레르기 물질(84.1%), 생산지 및 원산지(82.3%), 식품표시(75.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식품에 대한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는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다. 소비자가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식품의 위험요인들을 인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식품안전의 전반적인 수준이 충분히 높을 경우 개인 소비자는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식품전반에 대하여 불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소비자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실증연구 결과 국내 소비자들 가운데 식품안전전반에 대하여 불안한 소비자는 65.4%로 나타났다(최정숙 등, 2005). 영국 식품표준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영국소비자의 70%는 식품안전 이슈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50%는 식품 내 지방, 소금, 설탕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2004)²⁾. 또 뉴질랜드 식품안전국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대부분은 식품안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44%정도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2004)³⁾. 반면 일본 주부의 경우 81%가 식품 안전성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社團法人 中央調査社, 2002).

한편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식품구매시 안전성의 고려 정도와 관련된다. 김창길 등(2005)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가치속성 평가를 위한 퍼지 의사결정 분석결과, 유기농산물 '채소류'의 경우 안전성 속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친환경성이 23.1%, 맛이 18.9%, 영양가가 18.1%이고 외관과 신선도가 13.3%순 이었다. 곡류의 경우도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또 허영미(2005)의 연구에서도 친환경농산물 구입 동기로 안전한 먹거리(49.48%), 가족의 건강(25.96%) 등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어 식품의 안전성이 친환경농산물구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려면 품질향상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고 따라서 식품가격 상승이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만약 소비자가 식품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2) 영국 식품표준국(Food Standard Agency)에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거주하는 3,121명 대상으로 2003. 9.1~14일에 조사 실시 (<http://www.food.gov.uk/multimedia/pdfs/cas2003.pdf>)

3) 뉴질랜드의 식품안전국(NZFSA : 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에서 2002년 설립된 NZFSA에서 2003.8.1~3일에 실시된 전화설문조사, 전국조사이며 18세 이상 총 750명을 대상(<http://www.nzfsa.govt.nz/science-technology/research-projects/umr-research/nzfsa-quantitative-report-aug-03.pdf>)

1)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Food Safety Commission): 470명의 식품안전 모니터(소비자)를 대상으로 2003년 9월에 우편조사로 실시(<http://www.fsc.go.jp/>)

<표 1> 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의 인증기준

(2006.9월 이전)

종 류	인증기준
유기농산물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전환기농산물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

이는 지속적인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가격상승을 감수하면서까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증가에 따른 식품가격상승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가 식품안전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느냐와 관련되며 그것의 측정방법은 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지불의사를 파악하는 것이다(유소이, 2001). 아직까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한 변수로써 분석하였다.

2.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인지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시장에서 안전한 농·수·축산물(이하 '농산물'로 표기)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의 경우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고려할 것이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통해 가공식품 안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시장에서 운영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의미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에 있다⁵⁾.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4가지 유형, 즉 '유기농산물인증', '전환기농산물인증', '무농약농산물인증', '저농약농산물인증'으로 시행되어 오다가(<표 1> 참조), 2006년 9월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하였다.⁶⁾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유통방법과 현황과 같은 유통실태, 지불의사와 지출액 등을 통한 수요분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행동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인구·사회적 요인, 소비행태와 소비자선흐 및 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현태선과 김완수(1997), 강충관 등(2005), 김이선과 한영실(2005), 윤희재(2004)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속성 및 구매행동 및 관여도 등과 소비자행동을 분석한 것으로 김창길 등(2005)의 연구와 차동욱(2007) 등이 있다.

하다.

5) 유기 또는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은 1993년 12월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농산물품질인증'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분리되었으며 2001년 1월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가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6) 정부는 2006년 9월 27일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공포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변경하였음.

도시 주부들의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한 연구(현태선·김완수, 1997)에서는 응답자의 94.3%가 유기농산물을 들어본 적이 있으며 응답자의 9.5% 정도가 늘 구입하고 있었고 70.3%는 가끔 구입하고 있었으며 20.2%는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기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자의 42.3%가 구입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연구년도가 1997년임을 감안할 때 유기농산물의 유통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림부가 전국 5대 도시, 17개 매장에서 19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은 매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전체농산물에 차지하는 비중은 2.2%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4).

강충관 등(2005)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의 급속한 성장 추세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소비자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 및 소비수요예측을 한 결과,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 품목은 쌀(34.2%), 상추(28.1%), 시금치(9.3%), 깻잎(8.5%), 두부(8.2%)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 이상의 소비품목이 13 품목 정도로 매우 한정된 품목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보통(57.7%), 만족(29.2%), 불만족(12.3%)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만족의 이유로는 높은 가격(32.0%), 신뢰감 부족(20.0%), 신선도 저하(20.0%)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의 한달 평균 친환경 농산물 구입회수는 3.9회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1회 구입량은 1~2만원(15.0%), 5천~1만원(12.6%), 2~3 만원(10.9%), 3~5만원(9.0%) 수준이었다. 친환경농산물 구입 장소는 유통환경 변화추세에 따라 대형할인점(33.6%), 농협 매장(21.0%), 백화점(18.6%)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비자단체(6.0%), 슈퍼마켓(4.4%), 생산자 직매장(2.5%), 주문거래(2.5%), 재래시장(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수요는 '04년에 3,930~6,809억 원, '05년에 4,086~7,211억 원, '06년에 4,203~7,505억 원, '07년에 4,335~7,7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을 이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이용현황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연구(김이선·한영실, 2005)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이 월평균 식품 지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0%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구매 동기는 건강을 위하여가 대부분이었다. 또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구입의사는 약간 늘리겠다고 응답한 경우(46.6%)가 많았다.

허영미(2005)은 유기농산물소비에 대해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대상을 생협소비자, 인터넷소비자, 일반소비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생협소비자가 적극적인 유기농산물 소비자였으며 일반소비자는 단순

한 소비자에 머물렀고 인터넷소비자는 사항별로 생협소비자와 일반소비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김창길 등(2005)은 친환경농산물의 잠재적 수요가 시나리오에 따라 9,752억원에서 약 1조 9,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2005년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 5,777억원에 비해 1.7~3.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 관련요인 고찰

1)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의 관련요인

실증연구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녀의 여부 등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가 많이 연구되었다. 이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성별에 따른 식품안전 태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yrne et al., 1991; Dunlap & Beus 1992; Nayga Jr. 1996; Pilisuk et al., 1987; Knight & Warland, 2004; 박경진 등, 1999; 최정숙 등, 2005; 김효정·김미라, 2003). 이들 연구결과는 여성의 남성에 비해 식품안전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안전인지와 관련하여 연령의 효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많은 응답자가 젊은 응답자에 비해 식품안전에 관하여 관심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Dunlap & Beus, 1992; Jordan & Elnagheeb, 1991; 김효정·김미라, 2003)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잔류농약 및 식품안전인지, 불안요인에 있어서 연령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ealer & Willits, 1966; Byrne et al., 1991; Nayga Jr, 1996; 박경진 등, 1999). 자녀의 유무와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다. 자녀의 유무가 식품위험요인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Jussaume Jr. & Judson, 1992; Lin, 1995; 최정숙 등, 1995)도 있지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Nayga Jr, 1996; Jussaume Jr. & Higgins, 1998)도 있다.

교육수준의 영향에 대해서도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식품안전에 대하여 관심이 낮았다는 연구결과(Jordan & Elnagheeb, 1991; Byrne et al., 1991)가 있는 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었다(Dunlap & Beus, 1992; Nayga Jr, 1996; Lin 1995; Knight & Warland, 2004; 최정숙 등, 2005). 또 교육수준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효정·김미라, 2003).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식

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Byrne et al., 1991; Nayga Jr., 1996; Pilisuk et al., 1987) 상관이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Jussaume Jr. & Judson, 1992; Lin 1995; Jussaume Jr. & Higgins, 1998; 최정숙 등, 2005; 김효정·김미라, 2003). 식품안전의 불안요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관계를 살펴본 연구(최정숙 등, 2005)를 보면, 성별 및 어린 자녀의 유무가 불안요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과 어린자녀의 유무가 GMO와 유기재배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 교육수준은 불안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위의 연구들의 조사시기에서 1990년대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차이가 있었으며, 변수들도 '관심이 있는가' 혹은 '불안한가', 그리고 '알고 있는가' 등 측정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시장상황이나 새로운 질병유발위험요인의 등장에 따라 급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2) 친환경농산물 소비행동의 관련요인

한편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농산물의 가격, 소비자의 태도,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농산물 소비실태에 대한 한 연구(현태선·김완수, 1997)는 도시 소비자의 유기농산물 구입 이유가 교육수준, 주부의 직업 유무, 월수입, 자가 소유여부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Nelson(2004)은 북아일랜드 식품소비자의 위험관리행동(구매행동)의 영향요인은 위험의 인지정도와 위험의 속성인데 위험의 인지정도는 교육수준과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수요분석(허주녕 등, 2000; 백진이 등, 2003; 최태길 등, 2000)에서는 품질인증관련 소비자가 치 측정모델을 검증하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의 가격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구입의향을 측정한 연구가 많았다. 품질인증 수산물 수요분석(백진이 등, 2003)에서는 소비자의 시장참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매행태, 원산지, 인증상품구매경험, 직업유무였고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이었다. 농산물의 품질인증단계별 소비자 가치를 측정한 연구(최태길 등, 2000)에 의하면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가격과 받지 않은 농산물의 가격의 차이가 적을수록,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식품을 구입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수록 품질인증농산물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이용현황에 대한 한 연구(김이선·한영실,

2005)의 결과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구입의사는 가족형태와 직업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간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는 교육수준과 월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무농약 브랜드쌀에 대한 소비자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이순석 등, 2003)에서는 다중범위 이산선택 CVM 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지불의사(WTP)를 분석한 결과 각 가계들은 무농약 브랜드 쌀 구매 지불의사는 '반드시 구매형', '구매형', '반반구매형'에 따라 가격이 일반쌀에 비해 1.33배에서 1.75배까지 차이가 나타났는데 반드시 구매형의 경우 월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구매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반구매형'은 월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구매의향이 높았다.

김창길 등(2005)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행태를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확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동욱(2007)은 관여도, 구매충성도, 신뢰기준, 유기농산물의 속성 등의 구매행동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구매집단은 인증표시를 선호하고 고관여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구매보류집단은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더 인지하고 있었으며 곡물과 대형유통업체를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여부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미(2005)는 조사 대상자들의 유기농산물 소비관련 지식이 친환경농산물 소비 창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표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30.8%나 되고 보통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4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고정숙 등(2005)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는 층이 4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동욱(2007)의 연구에서도 품질인증표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고관여도를 가지고 있고 구매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III. 연구문제 설정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도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식품

위험요인 인지,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 식품안전성 고려여부,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 지식과 구매행동은 어떠하며 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도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도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2. 변수의 정의와 조사도구의 구성

구조화된 설문지는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변수들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수준, 친환경농산물 구매여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유형)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변수로 4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는데, 이에는 식품위험요인 인지여부, 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평가, 식품안전성 고려여부, 식품안전성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가 포함된다.

식품위험요인인지도란 식품과 관련된 여러 위험요인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척도 구성을 위해 일본 식품안전위원회(2003) 및 최정숙 등(2005), Nelson (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위험요인은 구체적으로 가축 등 수의약품(항생제), 방사선 조사식품, 잔류농약, 곰팡이,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⁷⁾,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이하 GMO), 수입식품, 포장재료, 바이러스, 사료, 이물질, 건강기능식품, 비료, 신기술제품, 화학물질, 기타로 구성하였다.⁸⁾ 이들 여러 위험요인 가운데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을 4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위험요인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을 부여하였다.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가 평가한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척도 구성을 위해 정기혜(2004), 최정숙 등(2005)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

질문은 소비자가 농산물의 안전에 대하여 기대한 수준에 비해 현실의 수준을 물었다. 응답의 척도는 식품안전의 현실수준이 매우 안전하다(1점), 안전한 편이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4점), 전혀 안전하지 않다(5점)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식품안전의 현실수준을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나타내며 식품안전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식품안전의 고려여부는 식품을 선택할 때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부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식품구매시 다양한 상품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선택하도록 한 후 안전성을 선택한 경우 1점,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하였다.

식품안전성 증가에 의한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 척도는 “소비자가 안전기준 상승에 찬성하는가”를 물어본 후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가격상승이 적당한 가”를 다시 질문하였다.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 가격상승이 10%미만이 적당하고 응답한 경우는 1점, 가격상승이 10~20%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점, 가격상승이 20~30%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점, 가격상승이 30~40%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점, 가격상승이 40~50%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점, 가격상승이 50%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점을 부여하였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가격상승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이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마크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그 인증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구성변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정도 및 이해정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인증마크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식별 정보인 ‘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 각 4종류에 대하여 본 적이 있는지(인지도)를 측정하였으며 인증마크 이해도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대한 인지여부의 측정은 4종류의 품질인증마크 모습을 그림으로 각각 제시하고 본 적이 있으면 1점으로 측정하고, 없으면 0점으로 측정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대한 이해정도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자세한 인증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정확히 알고 있다(4점)’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다(3점), 조금 알고 있다(2점), 전혀 알지 못한다(1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 척도는 4종류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인지여부를 측정한 점수(0~4점)와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대한 이해점수(1~4점)를 합산하여 점수화하였으며 신뢰도 계수(크론바하알파)는 0.78이었다.

7) 소해면상뇌증이나 방사선 조사식품 등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이므로 설문조사 시에서는 광우병 방사선처리를 한 식품으로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응답을 받았음.

8) 선행연구에서는 식품위험요인으로 크게 다이어트관련 위험요인(지방, 설탕, 소금), 식중독물질(냉동식품 식중독균, 개인위생, 소해면상뇌증(BSE)), 식품함유물질(이물질, 질산염, 방사선 조사, 농약 등)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관련 위험요인은 상대적으로 내부적인 통제가 가능한 부분으로 파악되므로 사회적인 식품안전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하여 이를 제외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요인	빈도(%)	요인	빈도(%)		
연령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138(26.0) 180(33.9) 139(26.2) 74(13.9)	직업	전문기술관리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생산직 가정주부 학생	103(10.2) 23(4.3) 108(20.1) 78(14.6) 169(31.5) 55(10.3)
	중졸 이하 고졸 대학원졸	9(1.7) 160(30.0) 319(59.7) 46(8.6)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45(8.3) 98(18.2) 143(27.2) 127(24.2) 69(13.1) 43(8.2)
	남 녀	201(37.3) 337(62.5)			
	기혼 미혼	389(72.3) 149(27.7)			
월평균 소득					

친환경구매행동 변수는 소비자가 평상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변수는 농산물을 구매할 때마다 항상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다(4점), 대체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다(3점), 친환경농산물을 별로 구매하지 않는다(2점), 친환경농산물을 전혀 구매하지 않는다(1점)로 측정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에서 남자는 0점, 여자는 1점을 부여하였고, 연령은 20대는 1점, 30대는 2점, 40대는 3점, 50대는 4점을 부여하였다. 결혼여부는 기혼을 0점, 미혼을 1점으로 부여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는 1점, 고졸(중퇴포함)은 2점, 대졸(중퇴포함)은 3점, 대학원졸 이상은 4점을 부여하였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계소득을 측정하였으며 100만원 미만은 1점, 100~200만원미만은 2점, 200~300만원 미만은 3점, 300~400만원 미만은 4점, 400~500만원 미만은 5점, 500만원 이상은 6점을 부여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1) 분석 자료 및 방법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이었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2004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면접원의 1:1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550명을 대상으로 하고 표본설계로 서울시 및 서울근교의 위성도시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서울시는 강남구 등 8개구, 수도권은 고양시 등 7개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우

리나라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할당 표집 하였으며, 성별비교를 위해 유의표집도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자 550명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539사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V.12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T 검정, 일원분산분석, Schéffe-Test,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연령은 20대가 26%, 30대가 34%, 40대가 26%, 50대가 14%로 구성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37%로 예상했던 40%에 근사치로 표집 되었으며 미혼자도 27.7%였다. 직업면에서는 가정주부가 31.5%, 사무직이 20.1%, 판매·생산직이 14.6%, 전문·관리직이 14.5%, 학생이 10.3%였다. 소득분포를 보면 월평균가계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6.5%, 200만원~300만원미만이 27.2%, 300만원~400만원미만인 경우가 24.2%였으며 400만원이상인 경우는 21.3%였다. 맞벌이 가정은 47.5%였으며 학력수준은 고졸이하가 31.7%였고 대졸이 59.7%, 대학원이상은 8.6%였다. 자세한 특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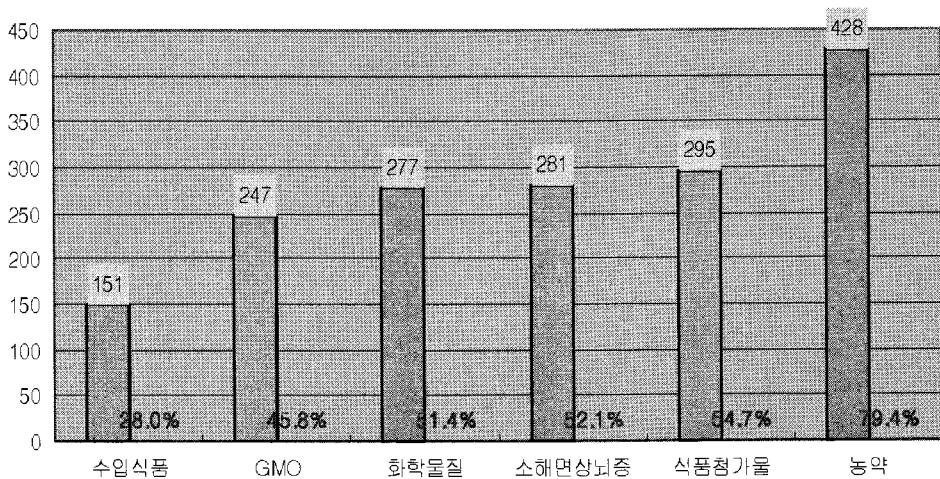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및 친환경구매행동의 일반적 경향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4개의 변수들로 측정되었다. 즉 식품위험요인 인지도,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식품안전성의 고려여부, 식품안전성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가 포함된다. 우선 식품위험요인 인지도의 일반적

<표 3>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식품 안전성의 고려여부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		식품가격상승에 대한 태도	
항 목	빈도(%)	항 목	빈도(%)	현재 가격대비	빈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181(33.8)	매우 안전하다	8(1.5)	가격상승 반대	62(13.5)
		안전한 편이다	53(9.8)	10%이내 상승 찬성	253(58.8)
		그저 그렇다	161(29.9)	10~20% 미만 상승 찬성	74(17.2)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355(66.2)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258(47.9)	20~30%미만 상승 찬성	23(5.3)
		매우 안전하다	51(9.5)	30~40% 미만 상승 찬성	6(1.4)
합 계	536(100.0)	합 계	531(100.0)	40~50% 미만 상승 찬성	0(.0)
				50% 이상 상승 찬성	1(.2)
				합 계	430(100.0)



<그림 1>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식품위험요인 인지도

경향을 보면(<그림 1> 참조), 응답자들이 가장 불안하다고 응답한 위험요인은 '농약'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79.4%가 불안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 외 식품첨가물은 전체의 응답자의 54.7%가 불안한 것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은 소해면상뇌증(BSE)로 전체 응답자의 52.1%가 불안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화학물질은 전체 응답자의 51.4%가, GMO는 45.8%가, 수입식품은 28.0%가 불안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약과 식품첨가물, GMO, 화학물질, 수입식품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조사된 일본 식품안전국의 조사결과와는 대체로 일치 하지만 수입식품의 경우 차이를 보였다. 또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식품첨가물, 식중독균이나 미생물 등이 주요 불안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박경진 등, 1999; 최정숙 등, 2005)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식품안전성의 고려여부를 살펴보면 식품을 선택할 때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상품속성으로 고려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3.8%로 나타났다.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11.3%가 기대하는 농산물안전수

준에 비해서 현실수준이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57.4%는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3.5%로 나타났다. 또 10%이내의 가격상승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과반수 이상인 58.8%로 나타났으며 10%에서 20% 정도의 가격상승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이상의 가격상승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6.9%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척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의 인지도와 내용이해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무농약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8%, 유기 인증마크의 경우는 51.4%, 저농약 인증마크는 29.2%, 전환기 인증마크는 29.1%로 유기 인증마크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의 내용 이해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를 합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척도를 구성한 결과

<표 4>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

(빈도,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								
전체 척도*	인증마크 인지도				인증마크 내용 이해도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				
상 중상	84(16.4) 122(23.9)	본적 있음	114 (29.2)	150 (27.8)	157 (29.1)	277 (51.4)	정확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1.0) 133(26.0)
중하 하	189(36.9) 117(22.9)	본적 없음	425 (78.7)	389 (72.2)	382 (70.9)	262 (48.6)	별로 알지 못 한다 전혀 알지 못 한다	199(38.9) 175(34.2)
합계	512(100.1)	합계	539 (100.0)	539 (100.0)	539 (100.0)	539 (100.0)	합 계	512(100.1)

* 전체 척도의 상, 중상, 중하, 하집단의 구분은 평균±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1표준편차 이상인 경우(5.19점 이상)를 상집단, 평균~평균+1표준편차 미만인 경우(3.30-5.18점)를 중상집단, 평균~평균-1표준편차인 경우(1.40-3.29점)를 중하집단, 평균-1표준편차인 경우(1.39점 이하)를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5>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

(빈도, %)

친환경농산물구매행동	빈 도	%
항상 선택한다	59	11.0
어느 정도 선택한다	373	69.5
별로 선택하지 않는다	99	18.4
전혀 선택하지 않는다	6	1.1
합 계	537	100.0
평균(표준편차)	2.10(.58)	

지식수준이 높은 상집단은 16.4%, 중상집단은 23.9%, 중하집단은 36.9%, 하집단은 22.9%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3.29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산물을 항상 선택한다는 응답자는 11.0%정도였고 어느 정도 선택한다는 응답자는 69.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친환경농산물을 별로 선택하지 않거나 전혀 선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9.5%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 사회 · 인구학적 변수와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사회 · 인구학적 변수들-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유형-과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할표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소비자의 식품위험인지도는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위험요인’의 빈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위 5위에 포함된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사회 ·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 · 인구학적 변수와 식품위험요인인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6> 참조), 여자는 남자보다 식품첨가물, 소해면상뇌증(BSE), GMO과 같은 식품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약, 화학물질과 같은 식품위

험요인에 대한 인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식품안전태도가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에 부합한다.

연령에 따른 농약, 화학물질, GMO과 같은 식품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는 차이를 나타낸 반면 식품첨가물, 소해면상뇌증에 대한 인지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대 응답자에 비해 50대 응답자가 농약과 GMO에 대한 위험 인지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 · 30대 응답자가 40 · 50대 응답자보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인지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 많은 응답자가 젊은 응답자에 비해 식품안전에 관심이 더 많다는 연구(Dunlap & Beus, 1992; Jordan & Elnagheeb, 1991; 김효정 · 김미라, 2003)의 결과에는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결과이다. 20대 젊은 소비자들이 위험요인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가 고연령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화학물질이 환경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50대 고연령층 소비자들이 농약과 GMO에 대한 불안이 저연령층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은 노인층이 ‘건강’자체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농약과 GMO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으나 그 외 식품첨가물, 화학물질, 소해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식품위협요인 인지도

	농 약		식품첨가물		소해면상녀증		화학물질		GMO		
	非인지	인지	非인지	인지	非인지	인지	非인지	인지	非인지	인지	
성별	남자	43 (21.4)	158 (78.6)	103 (51.2)	98 (48.8)	140 (69.7)	61 (30.3)	91 (45.3)	110 (54.7)	131 (65.2)	70 (34.8)
	여자	68 (20.2)	269 (79.8)	141 (41.8)	196 (58.2)	204 (60.5)	133 (39.5)	171 (50.7)	166 (49.3)	160 (47.5)	177 (52.5)
	합계	111 (20.6)	427 (79.4)	244 (45.4)	294 (54.6)	344 (63.9)	194 (36.1)	262 (48.7)	276 (51.3)	291 (54.1)	247 (45.9)
	X ² 값	.114		4.49*		4.54*		1.51		15.88**	
연령	20대	43 (31.2)	95 (68.8)	70 (50.7)	68 (49.3)	89 (64.5)	49 (35.5)	56 (40.6)	82 (59.4)	89 (64.5)	49 (35.5)
	30대	35 (19.4)	145 (80.6)	78 (43.3)	102 (56.7)	109 (60.6)	71 (39.4)	78 (43.3)	102 (56.7)	100 (55.6)	80 (44.4)
	40대	27 (19.4)	112 (80.6)	55 (39.6)	84 (60.4)	96 (69.1)	43 (30.9)	79 (56.8)	60 (43.2)	64 (46.0)	75 (54.0)
	50대	5 (6.8)	69 (93.2)	34 (45.9)	40 (54.1)	47 (63.5)	27 (36.5)	45 (60.8)	29 (39.2)	36 (48.6)	38 (51.4)
	합계	110 (20.7)	421 (79.3)	237 (44.6)	294 (55.4)	341 (64.2)	190 (35.8)	258 (48.6)	273 (51.4)	289 (54.4)	242 (45.6)
	X ² 값	18.26**		3.69		2.49		13.74**		10.66*	
결혼여부	기혼	70 (18.0)	319 (82.0)	167 (42.9)	222 (57.1)	252 (64.8)	137 (35.2)	199 (51.2)	190 (48.8)	193 (49.6)	196 (50.4)
	미혼	41 (27.5)	108 (72.5)	77 (51.7)	72 (48.3)	92 (61.7)	57 (38.3)	63 (42.3)	86 (57.7)	98 (65.8)	51 (34.2)
	합계	111 (20.6)	427 (79.4)	244 (45.4)	294 (54.6)	344 (63.9)	194 (36.1)	262 (48.7)	276 (51.3)	291 (54.1)	247 (45.9)
	X ² 값	5.96*		3.33		.43		3.40		11.30***	
교육수준	고졸이하	31 (18.3)	138 (81.7)	80 (47.3)	89 (52.7)	107 (63.3)	62 (36.7)	86 (50.9)	83 (49.1)	98 (58.0)	71 (42.0)
	대학	63 (19.7)	256 (80.3)	139 (43.6)	180 (56.4)	200 (62.7)	119 (37.3)	146 (45.8)	173 (54.2)	172 (53.9)	147 (46.1)
	대학원졸 이상	16 (34.8)	30 (65.2)	23 (50.0)	23 (50.0)	34 (73.9)	12 (26.1)	27 (58.7)	19 (41.3)	19 (41.3)	27 (58.7)
	합계	110 (20.6)	424 (79.4)	242 (45.3)	292 (54.7)	341 (63.9)	193 (36.1)	259 (48.5)	275 (51.5)	289 (54.1)	245 (45.9)
	X ² 값	6.33*		1.07		3.25		2.22		4.07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4 (23.8)	109 (76.2)	75 (52.4)	68 (47.6)	94 (65.7)	49 (34.3)	64 (44.8)	79 (55.2)	89 (62.2)	54 (37.8)
	200~300만원 미만	24 (16.8)	119 (83.2)	60 (42.0)	83 (58.0)	86 (60.1)	57 (39.9)	71 (49.7)	72 (50.3)	81 (56.6)	62 (43.4)
	300~400만원 미만	39 (19.9)	157 (80.1)	84 (42.9)	112 (57.1)	127 (64.8)	69 (35.2)	101 (51.5)	95 (48.5)	92 (46.9)	104 (53.1)
	400만원 이상	7 (16.3)	36 (83.7)	20 (46.5)	23 (53.5)	32 (74.4)	11 (25.6)	19 (44.2)	24 (55.8)	21 (48.8)	22 (51.2)
	합계	104 (19.8)	421 (80.2)	239 (45.5)	286 (54.5)	339 (64.6)	186 (35.4)	255 (48.6)	270 (51.4)	283 (53.9)	242 (46.1)
	X ² 값	2.58		4.08		3.14		1.92		8.70*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26 (20.6)	100 (79.4)	62 (49.2)	64 (50.8)	83 (65.9)	43 (34.1)	54 (42.9)	72 (57.1)	71 (56.3)	55 (43.7)
	사무직	25 (23.1)	83 (76.9)	56 (51.9)	52 (48.1)	64 (59.3)	44 (40.7)	45 (41.7)	63 (58.3)	69 (63.9)	39 (36.1)
	판매·생산직	12 (16.7)	60 (83.3)	30 (41.7)	42 (58.3)	50 (69.4)	22 (30.6)	35 (48.6)	37 (51.4)	44 (61.1)	28 (38.9)
	전업주부	24 (13.7)	151 (86.3)	67 (38.3)	108 (61.7)	107 (61.1)	68 (38.9)	105 (60.0)	70 (40.0)	71 (40.6)	104 (59.4)
	기타	24 (43.6)	31 (56.4)	27 (49.1)	28 (50.9)	38 (69.1)	17 (30.9)	22 (40.0)	33 (60.0)	35 (63.6)	20 (36.4)
	합계	111 (20.7)	425 (79.3)	242 (45.1)	294 (54.9)	342 (63.8)	194 (36.2)	261 (48.7)	275 (51.3)	290 (54.1)	246 (45.9)
	X ² 값	23.93***		6.82		3.39		14.47**		20.76***	

*p<.05, **p<.01, ***p<.001

면상뇌증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부분적이기는 하나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식품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은 가족을 형성함에 따라 가족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또 가족 내에 보호되어야 할 어린 자녀나 노인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에 따라 농약위험의 인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식품첨가물, 소해면상뇌증, 화학물질, GMO 위험 인지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대졸이하인 응답자가 대학원졸 이상인 응답자에 비해 농약 위험의 인지도가 더 높았다. 교육수준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도 일치하고 있지 않았는데 본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식품안전에 대하여 관심이 낮았다는 연구결과(Jordan & Elnagheeb, 1991; Byrne et al., 1991)

와 일치한다.

소득수준은 GMO위험 인지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농약, 식품첨가물, 소해면상뇌증, 화학물질 위험 인지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식품위험요인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은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적을 것임을 시사한다. 즉 식품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이에 대해 불안해 할 것이고 식품안전문제는 소득의 다소를 막론하고 전체 계층의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업유형에 따라 농약, 화학물질, GMO 위험 인지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업이 가정주부이거나 판매·생산직인 경우가 사무직 또는 기타(학생 등)의 경우에 비해 농약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그리고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은 가정주부나 판매생산직에 비해 화학물질의 위험 인지도가 높았다. 가정주부는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GMO 위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식품 안전성 고려여부

독립 변수	식품 안전성 고려여부			χ^2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합계	
성별	남자	133(66.2)	68(33.8)	201(100.0)
	여자	179(53.1)	158(46.9)	337(100.0)
	합계	312(58.0)	226(42.0)	538(100.0)
연령	20대	98(71.0)	40(29.0)	138(100.0)
	30대	94(52.2)	86(47.8)	180(100.0)
	40대	74(53.2)	65(46.8)	139(100.0)
	50대	43(58.1)	31(41.9)	74(100.0)
	합계	309(58.2)	222(41.8)	531(100.0)
결혼여부	기혼	211(54.2)	178(45.8)	389(100.0)
	미혼	101(67.8)	48(32.2)	149(100.0)
	합계	312(58.0)	226(42.0)	538(10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100(59.2)	69(40.8)	169(100.0)
	대졸	179(56.1)	140(43.9)	319(100.0)
	대학원졸 이상	30(65.2)	16(34.8)	46(100.0)
	합계	309(57.9)	225(42.1)	534(100.0)
	200만원 미만	93(65.0)	50(35.0)	143(100.0)
소득수준	200~300만원 미만	79(55.2)	64(44.8)	143(100.0)
	300~400만원 미만	110(56.1)	86(43.9)	196(100.0)
	400만원 이상	20(46.5)	23(53.5)	43(100.0)
	합계	302(57.5)	223(42.5)	525(100.0)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75(59.5)	51(40.5)	126(100.0)
	사무직	73(67.6)	35(32.4)	108(100.0)
	판매·생산직	42(58.3)	30(41.7)	72(100.0)
	전업주부	83(47.4)	92(52.6)	175(100.0)
	기타	37(67.3)	18(32.7)	55(100.0)
	합계	310(57.8)	226(42.2)	536(100.0)

*p<.05, **p<.01, ***p<.001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 및 식품가격상승에 대한 태도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				식품가격상승에 대한 태도			
	빈도	평균a	T검정/F검정	Schéffe검정	빈도	평균	T검정/F검정	Schéffe검정
성별	남자	199	3.42	-2.749***	151	1.30	1.491	
	여자	332	3.63		278	1.17		
	합계	531			429			
연령	20대	136	3.26	7.862***	a	97	1.12	
	30대	179	3.69		b	144	1.24	1.458
	40대	136	3.62		b	76	1.35	
	50대	73	3.64		b	65	1.23	
	합계	524			382			
결혼여부	기혼	384	3.64	4.050***	321	1.26	1.89	
	미혼	147	3.31		108	1.09		
	합계	531			429			
교육수준	고졸 이하	165	3.38	7.133***	a	140	1.08	a
	대졸	316	3.58		a	250	1.20	a
	대학원졸 이상	45	3.89		b	35	1.71	b
	합계	526			425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40	3.37	4.253***	a	105	1.09	a
	200~300만원 미만	143	3.59		ab	122	1.16	a
	300~400만원 미만	191	3.68		ab	154	1.23	a
	400만원 이상	43	3.72		b	40	1.68	b
	합계	517			421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121	3.05	3.896**	ab	126	1.00	
	사무직	121	3.01		ab	108	.94	
	판매·생산직	67	2.98		ab	72	1.04	.716
	가정주부	168	3.26		a	175	1.00	
	기타	53	2.89		b	55	.80	
	합계	515			536			

*p<.05, **p<.01, ***p<.001

a: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안전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농산물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함.

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가정주부는 가정의 식생활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여러 식품위험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 선택시 안전성 고려여부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품 안전성 고려여부는 여자가 남자보다, 30대와 40대가 20대와 50대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가정주부인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는 여자, 전업주부나 여자의 경우 식품을 많이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가정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성을 더 중요시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업유형에 따라 농산

물안전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8> 참조). 여자는 남자에 비해, 30대 이상은 20대에 비해,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대학원졸 이상은 대졸이하에 비해,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이상은 200만원이하에 비해, 그리고 전업주부인 경우에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가 낮았다. 이는 여자이고, 30대 이상이며 기혼자이고 대학원졸이며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이상이며 전업주부인 경우에 농산물안전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안전수준의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유형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인 집단은 대졸이하의 집단에 비해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가

<표 9>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의 영향요인(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명	척도	보통 구매 집단(n=373)		항상 구매 집단(n=59)	
		B추정값	Wald값	B 추정값	Wald값
절 편	-	.679	.922	-.792	12.070***
직업유형	판매·생산직	생산적이상=1, 기타=0	-.192	.350	.312 .511
	전문·관리직·사무직	전문·관리직/사무직=1, 기타=0	-.108	.086	-1.079 2.137
소득수준	고소득층	월평균소득 400 만원이상=1, 기타=0	.187	.239	.619 1.620
	중간소득층	월평균소득200 만원이상=1, 기타=0	.397	1.092	1.540 3.905*
교육수준	대졸	대출이상=1, 기타=0	.580	6.654*	.681 2.695
	대학원졸	대학원졸=1, 기타=0	-.195	.176	-1.610 1.973
식품안전태도	농약	위험인지=1, 기타=0	.211	.512	.545 1.158
	식품위험인지	소해면상뇌증	위험인지=1, 기타=0	-.351	1.831 -.841 4.391*
	GMO	위험인지=1, 기타=0	-.168	.399	.077 .038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	단일문항(1~5점)	.128	2.303	3.35 6.374*
식품안전성 고려여부	식품안전성 고려여부	안전성=1, 기타=0	.101	.151	.208 .294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	단일문항(0~7점)	.457	7.781***	5.13 4.794*
지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	척도(1~8점)	.209	7.410***	.339 10.220***

-2 Log 우도=684.728, $\chi^2=67.943(p<.001)$

Pseudo R²=.132((Cox와 Snell), .161(Nagelkerke)

· 참조 범주는 1임. 종속변수의 기준 범주는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집단임.

*p<.05, **p<.01, ***p<.001

더 긍정적이었다. 또 소득수준이 400만원이상인 집단은 400만원이하인 집단에 비해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이상인 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식품안전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가 더 높았다는 점은 해당 산업체에서 활용할만한 결과이다.

3. 친환경농산물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앞의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변수들을 독립변수들로 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유형, 식품안전성 고려여부,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위험요인 3가지 즉 농약, 소해면상뇌증(BSE), GMO의 인지도⁹⁾, 식품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수준이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

수들을 회귀분석에 적합하도록 전환하였다. 소득수준은 더미변수 2개로 전환하는데, 월평균소득이 고소득층(400백만원 이상인 경우)과 중간소득층(2백만원~4백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2개의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는데 고학력(대학원졸이상)과 중간학력(대졸)이상이다. 직업유형의 경우 2개의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는데 판매·생산직과 전문/관리직·사무직이며 기준변수는 전업주부이다. 종속변수인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은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의 범주는 구매하지 않는 집단=1, 어느 정도 구매하는 집단=2, 항상 구매하는 집단=3으로 구분하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모형은 -2log 우도값이 684.728로 유의확률이 0.1%미만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기준범주는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집단'으로 정하였으므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보통 구매하는 집단'과 '항상 구매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이 두 집단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친환경농산물을 보통으로 구매하는 집단'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대졸인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의 '비구매 집단'보다 '보통구매 집단'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또 식품안전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환경

9)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앞의 빈도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바에 따라 응답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상위 5개 식품위험 요인들과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농약, 소해면상뇌증, GMO 위험요인 인지도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 최종적으로 이 세변수를 선택하였다.

농산물(인증마크)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는 친환경농산물의 '비구매 집단'보다 '보통 구매 집단'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항상 구매하는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소득수준, 소해면상뇌증위험인지, 농산물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직업유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2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의 '비구매 집단'보다 '항상 구매 집단'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또 농산물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친환경농산물의 '비구매 집단'보다 '항상 구매 집단'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을 인지하는 응답자는 친환경농산물의 '비구매 집단'보다 '항상 구매 집단'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 결과는 다른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즉 다른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변수들이 동일할 수준일 경우 소해면상뇌증과 같은 새로운 식품위험요인을 인지하게 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 자체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켜서 구입을 꺼리게 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요인의 발생은 친환경농산물 구매확률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변수들은 친환경농산물구매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유형별로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변수들의 영향력은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식품안전성 고려여부는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의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식품가격상승에 대한 태도는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의 두 집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식품위험요인 인지와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는 친환경농산물의 '항상 구매 집단'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친환경농산물의 '보통 구매 집단'은 '안전수준이나 위험요인'과 같은 식품의 위험한 상태보다는 '가격상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환경농산물을 항상 구매하는 집단은 '안전수준이나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가격상승' 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보통 구매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교육이나 비용, 그리고 관련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친환경농산물의 '항상 구매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소득이나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와 같은 비용관련 변수와 식품안전수준에 대한 평가나 위험요인인지와 같은

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 변수들이었다. 즉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초기 구매는 주로 관련 지식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구매는 상대적으로 비싼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의 확보와 식품안전관련 시장 상황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연령, 결혼여부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은 앞의 분산분석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변수들과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지식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친환경농산물구매행동과는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지식수준은 친환경농산물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인구학적 요인들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지식과 같은 매개 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식품안전관련 사고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식품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혀 궁극적으로 식품 구매를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변수들을 선택하여 이들 변수들 각각과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다양한 사회 집단들간에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2004년도 6월에 실시한 것으로 본 연구의 기술적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농약, 식품첨가물, 소해면상뇌증, 화학물질, GMO 등을 가장 우려할만한 위험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식품관련 기사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외의 객관적인 정보매체 혹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지식보다는 언론의 보도 경향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고 또 변동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의 정확성 및 객관성의 중요성을 더 커진다. 이렇듯 왜곡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식품시장

자체를 좌우하게 될 개연성은 뚜렷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식품안전정책의 목표에서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안전정보가 제공되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정책과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식품 선택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의 33%에 불과하여 식품안전이 식품선택에서 최우선시되는 상품속성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농산물안전의 현실 수준은 기대 수준에 상당히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응답자의 14%정도가 식품안전에 따른 가격상승을 반대하였고 58%정도는 현재가격 대비 10%이내의 가격상승만을 지지하는 등 식품안전성의 증가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이었다. 비교적 안전한 식품으로 간주되는 유기식품은 일반 식품에 비해 2~2.7배 이상의 가격차가 나는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한국소비자원, 2003),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소비자의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해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유형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변수들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40대이상이 30대 이하보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학원졸 이상이 대학졸 이하보다, 고소득층(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이 저소득층(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보다, 전업주부가 다른 직업유형종사자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

식품안전관련 소비자의 태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만 다루어 왔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태도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결과도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로 '식품을 다루고 있거나 구매경험이 많은'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하여 부정적이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나 집단식중독, 불량식품과 같은 부정적인 식품정보의 전달이 식품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식품안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집단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집단에게는 적극적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안전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가 친환경농산물과 같은 식품 구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이나 기업은 더 세심한 주의를 하여 식품관련 정보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대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에 민감할 것이므로 관련된 제품 개발에서 기업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50대이상, 기혼자, 대학원졸이상 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해 민감하였다. 여자, 20대, 기혼의 경우 GMO에 대한 위험인지가 특히 높았다. 식품안전정책의 목표는 식품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이를 소비하는 일반 대중의 안심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된다. 향후 정부 및 기업에서 식품기술을 축진하고 개발할 경우 소비자에 의해 어떻게 인지되고 수용되는 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비구매 집단'에 비해 '보통 구매 집단'이 될 확률은 대졸이상이거나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비구매 집단'에 비해 '항상 구매 집단'이 될 확률은 중간소득층이거나 농산물안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거나, 가격상승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높았다. 즉 친환경농산물의 '보통 구매 집단'은 '식품 위험 상황'보다는 '가격상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상 구매 집단'은 '식품 위험 상황'과 '가격상승'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수가 친환경농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향상이 유용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초기 구매는 관련 지식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는 상대적으로 비싼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는 구매력과 식품안전관련 시장 상황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올바른 농산물 선택을 위해서 식품표시와 홍보활동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 역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축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처음 접하는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증진 및 지식 제공 등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집단은 소득수준, 가격 상승 및 시장 안전상황의 변화 등에 민감하므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판매업자의 가격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친

환경농산물 가격수준에 따른 반응, 민감성 등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지역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조사기간이 오래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변수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 및 구매행동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식품과 관련된 위험요인 이외에 영양학적 측면과 관련된 요인들, 예를 들면 지방, 소금, 설탕 등에 대한 소비자인지 및 행동에 대한 연구도 후속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업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 접수일 : 2007년 08월 21일
- 심사일 : 2007년 10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2월 24일

【참고문헌】

- 장충관 외 8명(2005).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 고정숙·박은식·황대용(200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2006 소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849-860.
- 김이선·한영실(2005). 친환경농산물 이용현황 및 민족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조리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 김창길·김태영·서성천(200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 김효정·김미라(2003).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및 정보 요구도에 관한 연구(I): 잔류농약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15-26.
- 김혜선·김문정(2004).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기초 지식과 정보인지에 따른 구매의사. **한국가정과학회지**, **7(1)**, 113-129.
- 농림부(2004).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태 조사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고서.
- 박경진·김영찬·이홍석·노민정·조양희·이영호·이경민·노우섭·양준호·김종수·이섬표(1999). 식품안전성에 대한 기본인식 조사: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14(1)**, 34-44.
- 박경진·천석조·박기환·홍종해·김정원(2003). 식중독 경험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18(3)**, 139-145.
- 박혜영·김시월(2005).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대한 소비자 정보요구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2)**, 175-189.
- 백진이·이승래·조재환(2003). 더블허들모형에 의한 품질 인증 수산물 수요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4권 제2호, 131-139.
- 유소이(2001). 식품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 이론적 접근방법 및 측정방법 고찰. **소비자학연구**, **12(2)**, 79-100.
- 윤희재(2004). 유기농산물 소비자 인식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석·오상현·정호근·김충실(2003). 다중범위 이산선택 CVM 기법을 이용한 무농약 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 가치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30(2)**.
- 정기혜(2004).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그 체감도에 따른 행동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차동욱(2007). 유기농산물 속성에 대한 소비자구매행동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4(2)**, 197-218.
- 최정숙·전혜경·황대용·남희정(2005). 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우려의 관련 요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4(1)**, 66-74.
- 최태길·조태환·김태균(2000). 더블허들모형에 의한 품질 인증 상추 수요분석. **농업경제연구**, **44(1)**, 81-93.
- 한국소비자원(1998).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식 및 안전성 조사. 소비자안전넷 <http://safe.cpb.or.kr>
- 한국소비자원(1999).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 결과. 소비자안전넷 <http://safe.cpb.or.kr>
- 한국소비자원(2003).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표시실태. 소비자안전넷 <http://safe.cpb.or.kr>
- 허영미(2005). 유기농산물소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농촌 사회**, **15(2)**, 45-83.
- 허주녕 외(2000). Logit 및 Turnbull 모형을 이용한 복승아 품질인증의 소비자가치 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27(3)**, 91-102.
- 현태선·김완수(1997). 일부 도시 주부들의 수입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 및 소비실태 조사. **지역사회 영양학회지**, **2(1)**, 74-85.
- 社團法人 中央調査社(2002). 食品の安全性と信頼に関する主婦調査. 日本.
- Bealer, Robert and Fern Willits.(1968). Worriers and Non-Worriers among Consumers about Farmers' Use of pesticid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

- 189-204.
- Bord, Richard and Robert O'Connor(1992) Determinants of Risk Perceptions of a Hazardous Waste Site. *Risk Analysis*, 12(3), 411-416.
- Bruhn, Christine, Katherine Diaz-Knauf, Nancy Feldman, Jan Harwood, Genevieve Ho, Ernestine Ivans, Larel Kubin, Cathi Lamp, Mary Marshall, Susan Osaki, Gwendolyn Stanford, Yvonne Steinbring, Isela Valdez, Eunice Williamson, and Evelyn Wunderlich(1991). Consumer Food Safety Concerns and Interest in Pesticide-Related Information. *Journal of Food Safety*, 12, 253-262.
- Byrne, Patrick, Conrado Gempesaw II, and Ulrich Toesn-meyer(1991). An Evaluation of Consumer Pesticide Concerns and Risk Information Sources. *Jouther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December, 167-174.
- CNN(2000) Mad Cow Disease: Counting the Cost. Retrieved October 15, 2001.
<http://WWW2.cnn.com/SPECIALS/ 2000/madcow/>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0). *White Paper on Food Safety*.
- Dunlap Riley & Curtis Beus(1992). Understanding Public Concerns About Pesticides : An Empirical Examination.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6(2), 418-438.
- Fein, Sara, C., T. Lin & Alan Levy(1995). Foodborne Illness: Perceptions, Experiences, and Preventives Behavior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ood Protection*, 58(12), 1405-1411.
- Flynn, James, Paul Slovic & C. K. Mertz(1994) Gender, Race, and Perception of Environmental Health Risks. *Risk Analysis*, 14(6), 1101-1108.
- FSC(2003). Survey for Food Safety Monitors: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http://www.fsc.go.jp/>.
- Imcamp, Heiner(2000). The Impact of Consumers in Ecological Product Information Is Growing-Evidence From Two German Surveys. *Journal of Consumer Policy*, 23(2), 193-202.
- Jordan, Jeffrey & Abdelmoneim Elnagheeb(1991). Public Perceptions of Food Safety.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September, 13-32.
- Jussaume, Raymond, Jr. & Lorie Higgins(1998). Attitudes Towards Food Safety and the Environment: A Comparison of Consumers in Japan and the U.S.. *Rural Sociology*, 63(3), 394-411.
- Knight, Andrew & Rex Warland(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s and Concern About Food Safety Issu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8(1), 107-120.
- Lin, Chung-Tung Jordan(1995).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Influences on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in Food Shopping. *Agriculture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October, 190-198.
- Moon Wanki and Siva K. Balasubramanian(2003). Willingness to pay for Non-biotech Foods in the U.S. and U.K(2003).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7(2), 317-339.
- Nelson(2004). Risk management behavior by the Northern Ireland food consum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8(2), 186~193.
- Nayga, Rodolfo, Jr(1996). Socio-demographic Influences on Consumer Concern for Food Safety: The Case of Irradiation, Antibiotic, Hormones, and Pesticides.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18, 467-475.
- Neuner, Michael(2000). Collective prototyping :A Consumer Policy Strategy to Encourage Ecological Marketing. *Journal of Consumer Policy*, 23(2), 135-175.
- NZFSA(2003), A Quantitative Study-2003 consumer attitude survey.
- Pilisuk, Marc, Susan Hillier Parks, and Glenn Hawkes (1987). Public perception of Technological Risk. *The Social Science Journal*, 24(4), 403-413.